야시마지 절 보물관

야시마지 절 보물관은 본당 바로 옆에 있으며, 절의 긴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온 여러 중요한 유물과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불상과 족자, 병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대부분의 전시품이 겐페이 전투(1180~1185 년) 막판에 미나모토 가문이 다이라 가문을 격파한, 일본사에서 중요한 국면인 야시마 전투(1185 년)와 관련된 것들입니다. 화가 가노 단신(1653~1718)이 그린 두 장의 두루마리 그림은, 미나모토 가문의 사수였던 나스노 요이치(1169~1232 년이라고 전해짐)가 퇴각하는 다이라 가문의 배에 걸려 있는 부채에 전설적인 화살을 쏘는 광경을 한 장면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.

전시품 가운데에는 요이치의 자손이 기증한 흰 깃발도 있습니다. 이 흰 깃발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나모토 가문이 전시 중에 내걸었던 전투용 깃발입니다.

승려 구카이(774~835)가 조각했다고 하는, 야시마지 절의 천수관음상도 보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 또한 화가 도사 미쓰오키(1617~1691)가 그린, 야시마 전투를 정교하게 묘사한 유명한 병풍과 다양한 족자 등도 있습니다.